

April 16, 2017 부활주일(Easter)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인도: 김원기 목사
Offering 헌금기도	사회자 Presider
☉ Praise 찬 송	24장 (왕 되신 주)
☉ Prayer 참회기도	다같이 Together
☉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Together
Hymn 찬 송	161장(통159)
Prayer 기 도	조흥진 장로
Announcement 교회소식	"유아세례 · 성찬식"교육부찬양
Scripture Reading 성경봉독	John 11:17-44 / 마27:57-61
Choir 성가대찬양	162장(부활하신 구세주)
Sermon 말 씀	Ariel Flores / 김원기 목사
The Resurrection and Life / 새 무덤의 주인	
☉ Prayer 기 도	다같이 Together
☉ Benediction 축 도	김원기 목사

오후 찬양예배	❖ 주일 오후 1:30
☐ 부활주일 오후를 가족과 함께	

금요 기 도 회	❖ 금요일 오후 8:00
☐ 말씀: 그리스도인의 생활 ☐ 본문: 롬12:14-21 ☐ 기도: 합심기도	

기타 예배 안내	
☐ 새벽 기도회	❖ 월요일 자유기도, 화요일부터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 교육부 예배	❖ 주일 오전 11:00 / 주일 오후 1:30

구역별 모임 안내	
☐ 고구마 - 구역장: 최영애권사	인도: 성기현장로
☐ 감자 - 구역장: 김옥련권사	인도: 사라틀집사
☐ 무 - 구역장: 김봉재권사	인도: 황창원전도사
☐ 배추 - 구역장: 새가족부	인도: 김원기목사

† 선교의 끈을 쥐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1. 2017년 표어 "예수님처럼 말씀대로"(요15:10)	
2. 이달에 읽을 성경은 여호수아입니다.	
3. 2017년 4월 행사 : 16일: 부활주일연합예배 (성찬식, 유아세례) 23일: 한국수도노회원방문, EM Retreat Fundrasing(Lunch) 30일: 성숙한오후(7), 생일축하, 교역자월례회	
4. 유아세례-이연지(부모 이호중,이주영) / 성찬식(예배부)	
5. 성숙한 오후 휴강합니다.(16일, 23일)	
6. 성가대 피아노반주 봉사자를 찾습니다.	
7.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성숙한 오후 매주 주일 오후(1:30 pm) #매주 토요일 커피브레이크(6:00 am) #토요새벽기도: 4월15일 장정님 4월22일 성승록 4월29일 김봉재 #2017년 성도의 삶 - 말씀의 부흥과 영적인 성숙을 이룹시다.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합니다. - 말씀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합니다.	
8. 교우동정 - 사라틀 집사 모국방문중입니다. 장정관 간사 모국방문중입니다.(아버님병환) 황동균 집사 모국방문예정(4월22일)	
9. 남선교회에서 23일 식사준비 헌신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 기도 : 1부- 합심기도	•2부- 김경식장로
☐ 안내 : 1부- 황창원전도사	•2부- 황동균집사
☐ 예배 특송 : 성가대찬양	☐ 찬양예배 기도 : 합심기도

교회를 섬기시는 분	
☐ 교육목사 : Ariel Flores	☐ 시무장로 : 김경식 성기현 조흥진
☐ 전 도 사 : 황창원	☐ 협동장로 : 이화정

헌 금 OFFERING Devotion

십의일조 : \$	선교헌금 : \$
주일헌금 : \$	자녀헌금 : \$
감사헌금 : \$	
EM헌금 : \$	기타 : \$
지난주일 합계 : \$	

마태복음21:1-11 맞은편 마을의 사는 사람(Palm Sunday)

오늘은 예수님의 지상생애 마지막 한 주간(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교회력에서는 '종려 주일(Palm Sunday)'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어린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자랑스럽게 들어가실 때 환영하는 뜻으로 사람들이 종려 나무 가지들 베어 흔들면서 유래되었습니다. 한때는 '호산나주일(Dominica Hosanna)'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당시 환영하는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친 데서 유래된 것입니다.

종려주일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날입니다.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입성은 고난과 죽음의 전주곡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주님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있지만 모진 고통의 길을 향해 이를 악물고 전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스리기 위해 권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잔을 마시기 위해 죽음의 자리 끌고다를 향해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군림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고 자신을 화목제물로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 산 벧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아직 누구도 타보지 못한 나귀가 메어 있을 것이다. 그럼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는 종려주일의 교훈을

나귀주인

1. 이름 없는 나귀주인(3)

나귀 새끼를 내놓는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구체적으로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구속사적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찮은 게 아니라 중요하고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일의 당사자의 이름이 없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들어내기 보다는 그저 내 것을 쓰시겠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면 되는 것입니다.

2. 머뭇거리지 않는 나귀주인(3)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한 태도입니다. '주가 쓰시겠다'에서 주는 문법적으로 소유격으로 사용합니다. 이 책이 저자 마태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글의 문법적 방법입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큰 돈을 만지면서 돈에 대한 개념이 정확한 사람입니다. 그가 세관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는 즉시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 갑니다. 마태를 부르신 이유는 아무리 많은 돈을 만 질수 있어도 그 소유자는 내가 될수 없다는

3. 뒤 따르는 나귀주인(8,9)

8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8절의 '무리의 대다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아마 이 나귀 주인도 그 속에 포함되어 주님을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무엇인가를 헌신한 뒤 댓가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인정받으려는 심리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움입니다. 이것은 일에 대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답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보장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무리 중에 포함 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할 수 있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담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그냥 따라가만 줘도 힘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 나귀 주인은 그런 것을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돋보이지 않아도 함께 해줌으로 힘이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요15:10)



담임목사 : 김원기
(Pastor, Wonki Joseph Kim)

www.dongsanoflove.org

(교회) 9440 Balboa Bl, Northridge, CA 91325

☎ 818.518.5108(교회)